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20:31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첫째 언약(율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첫째 언약으로는 인간 구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둘째 언약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째 언약, 율법으로는 사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짐승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만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생각을 많이 다르게 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이 이야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심판받는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론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한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피가 나에게 한번 발라졌으면 두 번 세 번 바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돼요. 확신이라는 말은 확정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내가 그걸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은 무효한 것입니다. 둘째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이 재림주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본론>

1.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

니므로(히10:1상)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은 약속대로 오신다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 즉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탠다드가 아니라 캐년을 가진 것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히10:1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히10:2)

짐승의 피가 온전하다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합니까?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단번에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10:3-4)

그러나 이렇게 피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이 죄에 대해 고민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간들 인생의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를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히10:5-6)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한 몸이 둘째 언약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둘째 언약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것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복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복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만유이기 때문입니다.

2.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히10:7)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말씀하신 그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히10:8)

사람의 행위와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살리는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히10:9)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율법(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림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못 본 사람들은 그림자를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림자를 폐하고 실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실체를 죽인 것입니다. 다른 비유로 보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실체가 오니까 자기들은 그림자로 족하다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10:10)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단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부모가 어떤 신분이면 자식도 그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놓치

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합니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3.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10:12)

영원한 제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내는 영원한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면 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걸 확실하시고 끝내야 합니다. 두 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히10:13)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밟으신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마귀와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꿇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10:14)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히10:15-16)

우리가 붙잡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실체가 주신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히10:17)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들을 향해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3,8이 각인된 사람은 죄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하게 된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10:18)

저와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나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 성취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단 한번의 제사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걸 1,3,8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